



영암 F1 D-4

마크 워버와 세바스찬 베텔이 모는 레드불 머신들이 지난 7월 브리티시 그랑프리에서 멋진 코너링을 선보이고 있다. 레드불은 코리아 그랑프리도 앞두고 F-덕트 시스템을 도입해 직선주로의 경쟁력도 한층 높였다. /연합뉴스

레드불 코너링이나, 맥라렌 직선질주나 ‘타격 7관왕’ 이대호 MVP 도전

영암서킷 직선주로 F1 그랑프리 승부처... F-덕트 시스템 도입 비상

‘F1 최고의 팀’ 레드불이 영암서킷의 긴 직선주로를 걱정하고 있다. 라이벌에 비해 톱 스피드가 느린 레드불은 올해 직선 구간이 긴 벨기에 그랑프리, 스페인 그랑프리, 이탈리아 그랑프리, 몬테카를로 그랑프리 등 빠른 주파수 순위를 받아왔다. 레드불의 보스 크리스찬 오너는 17일 F1 홈페이지와 인터뷰에서 “코리아 그랑프리 는 섹터1에만 3개의 직선구간이 있고, 섹터1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직선구간은 F1서킷 가운데 최장이라 말할 수 있는 주로여서

걱정된다”고 밝혔다. 레드불은 그랑프리, 섹터 2, 섹터 3에는 맥라렌과 페라리보다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고속코너가 많아 해 볼만하다고 보고 있다. 레드불은 직선 구간에서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영암서킷에 새로운 F-덕트 시스템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F-덕트는 한마디로 차체를 타고 흐르는 공기 흐름을 변화시켜서 직선 주로의 속도를 끌어올린 시스템이다. 맥라렌의

경주차들은 올해 F-덕트 덕분에 직선 구간에서 시속 3~4km의 스피드를 추가로 내면서 레드불을 위협하고 있다. 레드불의 컨설턴트 헬무트 마르코는 “레드불의 F-덕트는 르노를 모방한 것으로, 최근 열린 일본 스즈카 서킷에서 팀의 세바스찬 베텔이 우수한 것은 이 덕분 아닌가 싶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직선 주로에서 보여줄 맥라렌의 폭발력과 레드불의 코너링 기술이 한국 그랑프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크리스찬 오너>

진흥고 출신 양의지 신인왕 후보

롯데의 ‘해결사’ 이대호가 ‘괴물’ 투수들과 최우수선수(MVP) 타이틀을 놓고 격돌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7일 최우수선수 후보 3명과 최우수신인선수 후보 4명을 확정 발표했다. 최우수 선수 후보에는 타격 7관왕을 차지한 롯데 이대호와 방어율·탈삼진 2관왕에 오른 한화 류현진, 다승 1위 SK 김광현 두 좌완 괴물투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중 이대호가 가장 눈에 띈다. 이대호는 올 시즌 홈런(44개), 타율(0.364)을 비롯해 안타, 타점, 득점, 출루율, 장타율 등 타격 7개 부문의 타이틀을 휩쓸었다. 타격 7관왕은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9경기 연속 홈런이라는 기록까지 작성해 MVP의 유리한 고지에 섰다.

최하위 한화 마운드를 책임진 류현진의 활약도 눈부셨다. 1.82의 방어율을 기록한 류현진은 29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로 팀의 49승 중 16승을 책임졌다. 하지만 부상과 피로 누적으로 시즌을 일찍 마감하며 다승과 승률 타이틀을 각각 SK 김광현과 삼성 차우찬에게 넘겨줬다. 김광현은 17승7패로 다승왕에 올랐고 방어율(2.37)과 삼진(183개) 부문에서 2위를 기록했다. 최우수신인 부문에서는 두산 포수 양의지(23)와 투수 이재곤(22·롯데)·고원준(20·넥센), 내야수 오지환(20·LG)의 대결이 벌어졌다. 가장 강력한 신인왕 후보는 두산의 안방을 지킨 양의지다. 2006년 진흥고를 졸업하고 두산에 입단한 양의지는 경찰청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부쩍 실력이 늘었다. 복귀 후 첫 무대였던 올 시즌 20개의 홈런을 때려내 신인포수 최초로 20홈런을 달성했다. 0.267의 타율로 68타점도 기록했다. 최우수선수 및 최우수신인선수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며, KBS N 스포츠와 NAVER를 통해 생중계된다.

황제 슈마허 “반갑다 F1코리아”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독일·메르세데스)가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 그랑프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슈마허는 17일 F1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뷰에서 “드디어 나쁜만이 아닌 모든 선수에게 새로운 경기장에서 대회가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F1 대회에서 7차례나 종합 우승을 차지한 뒤 2006년 대회를 끝으로 은퇴했다가 올해 복귀한 슈마허는 드라이버 순위 9위에 머물고 있다.

4년 만에 복귀해 예전의 감각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슈마허로서는 어차피 다른 선수들도 다 처음 달려보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한 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슈마허는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나라다. 서킷 최종 검수가 마지막 순간에 통과되는 했지만 모든 것이 잘 준비돼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주 일본에서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한국에서는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5월 터키 대회에서 4위에 올랐던 슈마허는 이후 좀처럼 성적을 내지 못하다 10월 열린 일본 대회에서 6위를 차지하며 상승세에 있다. 2년 전 광주에서 열린 F1 관련 행사에 참가했던 니 하이델베르크(독일·BMW자우버)도 “나는 항상 새로운 경기장을 좋아한다. 드라이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해주고 싶을수록 많은 나라에서 경기가 열리는 것이 긍정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하엘 슈마허>

카도쿠라 VS 배영수 선발 대결

오늘 대구서 한국시리즈 3차전

일본인 투수 카도쿠라 켄(37·SK)과 삼성의 우완 투수 배영수(29)가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SK와 삼성은 18일 오후 6시 대구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7전4선승제) 3차전 선

발투수로 카도쿠라와 배영수가 각각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SK는 안방 1, 2차전을 쓸어담으면서 2연승 중이고 2연패에 빠진 삼성은 3차전에서 반격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적지에서 3연승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카도쿠라와 SK의 3차전 승리를 저지하고 안방 첫 승에 디딤돌을 놓아야 하는 배영수 중 누가 웃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